

SLA 아시아지부 국제 컨퍼런스 참가기



정진규_한국콘텐츠진흥원

1. 머릿말

지난 2월 중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orean Speci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KSLA) 제1대 집행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집행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전세계 전문도서관을 대표하는 기구인 SLA(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아시아지부 국제 컨퍼런스에 KSLA 대표단의 일원으로 일본 동경을 다녀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ICoASL) 2011'이며 아시아지역 전문도서관 종사자간 상호교류를 통한 관련 지식과 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SLA와 일본전문도서관협회(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이하 JSLA)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일본 동경에 소재한 국제연합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에서 삼일간(2011.2.10_12)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Building User Trust : The Key to Special libraries Renaissance at the Digital Era'를 주제로 하여 아시아 각 국에서 전문도서관 관계자 약 170여 명이 참가하여 아시아 각 국의 전문도서관과 관련한 기술과 지식을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에서 박계숙 회장 등 5분이 참석하였고, 관련 업계에서는 안승대 사장(EBSCO), 나일영 사장(Scholars AID), 오쿠라 대표(오쿠라) 등이 참가하였다.



〈KSLA 참가자〉



〈SLA 임원진과 함께〉

이번 행사의 참가는 작년 10월에 개최한 KSLA 이사회에서 SLA의 발표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발표자는 박계숙 회장이 하기로 하였고, 부회장과 이사 1분이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KSLA 회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행사에 참가할 대표단이 구성된 것이다. 그 동안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JSLA와의 교류가 있었지만 SLA는 아직 국내 회원이 없고 그 활동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KSLA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SLA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전문도서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 참가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행사내용

이번 행사는 사흘 동안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은 SLA 의장 연설, 초청자 발표, 'Click University' 튜토리얼, 스폰서 제품 소개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각국의 우수사례 발표 및 스폰서 비즈니스 소개로 이루어졌다. 행사 마지막 날은 도쿄의 주요 전문도서관 견학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시아경제연구소(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도서관과 에도도쿄박물관 도서관(Edo Toyko Museum Library)을 방문하였다.

아시아경제연구소(IDE) 도서관은 일본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관한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한 도서관이다. 자료구성은 각 국의 기본자료와 사회과학자료, 통계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현재 소장자료는 대략 57만 건이다.

에도도쿄박물관은 점점 상실되고 있는 에도시대 도쿄의 역사적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돌이켜 보면서 미래의 도쿄를 꿈꾸어 나가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으로 이 박물관의 부속 도서관을 통해 에도시대 도쿄에 관한 영상자료, 도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연구소(IDE) 도서관〉



〈에도 도쿄박물관 전경〉

3. 활동내용

출발 전 이번 행사의 주최인 SLA 대표진과의 미팅을 요청하였는데 SLA에서 이미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라 많은 시간을 낼 수 없기에 양해를 구하고 양쪽 대표단이 짧은 미팅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SLA - KSLA 미팅

KSLA 대표단은 사전에 SLA 홈페이지를 통해 SLA 현황을 조사하였고 협의할 내용을 미리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었다. 미팅은 행사 첫날 행사가 개최된 UN대학에서 종료된 후 약 30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참석자는 KSLA 대표단과 SLA를 대표하여 의장인 Anne Caputo, SLA 아시아 지부장인 Kyoto Sato 그리고 후임 SLA 아시아 지부장인 BP Prakash가 함께했다. 미팅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SLA 회원 가입 조건과 SLA의 조직체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LA는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전 세계 83개 국가의 11,000여명이 회원이다. 이중 아시아 지부는 19개 국가에서 226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확인된 SLA 기관회원이 없는 실정이다. SLA에 KSLA의 기관회원 자격여부를 문의한 결과 각 국 전문도서관 단체의 SLA 기관회원 가입은 가능하나 해당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기관회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SLA 회원 가입 시 특전으로는 Chapter, Division, Caucus 참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모든 지역 Chapters 활동을 SLA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 SLA 회원 가입시 특전
 - Chapters / Divisions / Caucuses 활동 가능
 - Chapters : 58 지역 chapters로 구성
 - Divisions : 전문도서관을 학교, 기업 등으로 분류(25개)
 - Caucuses : 공동 관심분야의 비공식 그룹 예) Int'l Information Exchange Caucus
- SLA 회비
 - 〈개인회원〉
 - Full Member (\$200) - 연봉 US \$75,000 이상
 - Full Member (\$185) - 연봉 US \$35,000 - \$74,999
 - Full Member (\$114) - 연봉 US \$18,001 - \$34,999
 - Full Member (\$40) - 연봉 \$18,000 이하
 - 〈기관회원〉
 - Organizational Member (\$750)

KSLA, JSLA 등 각국의 전문도서관 단체와 SLA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필요시 상호 협력 가능하다고 하는데 SLA가 각국 전문도서관 단체들의 관계 증진에 조력자로서의 역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CoASL과 같은 국제 행사의 한국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SLA측은 이 문제는 SLA에서 결정 할 문제이며 개최를 한다면 KSLA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아무래도 ICoASL과 같은 행사를 한국에서 유치되길 희망한다면 국내에서 보다 많은 SLA 회원 가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LA - KSLA 미팅〉

2) 초청자 발표

행사 첫날 초청자 발표에서 KSLA 박계숙 회장은 전문도서관에서의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Creating the Sustainable Library Future”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박회장은 먼저 도서관 패러다임의 이동을 언급하며 현 단계는 도서관은 전통적 영역과 전자도서관 영역이 공존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이버 도서관의 모습을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역할은 그 기능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정보중재자(information 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서도 서비스와 접근수단에 맞추어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KSLA 박계숙 회장 초청 발표 모습〉

이러 도서관 환경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ROI(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개념, 이노베이션,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며 내적요인은 디지털변환, 웹사이트, 도서관 솔루션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환경요인을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경영상의 경제성, 콘텐츠의 경쟁력, 이용자 만족과 사서의 효율성 증진을 언급했다. 끝으로 혁신전략으로 블루오션을 소개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현재의 수행업무를 제거(elimination), 감소(reduce), 증가(raise), 창조(create)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4. 맺음말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느낀 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사회에서의 달라진 한국의 위상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SLA 회원 가입, 활동이 요구되며 KSLA가 이 분야의 국제연대 활동에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SLA와 KSLA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협력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ICoASL과 같은 행사를 한국에 유치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KSLA 회원기관 몇 곳이 SLA에 가입하고 영향력을 키워야 추후 한국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SLA 회원가입, 활동과는 별도로 JSLA 등 아시아 각 국의 SLA와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독자적인 아시안 전문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